

종단 초월한 민족문화유산 대장경 사랑

태고종, 해인사서 정대불사 봉행

태고종이 대장경 천년을 축하하는 대규모 법회를 조계종 사찰인 합천 해인사에서 봉행했다.

태고종 경남교구총무원(원장 지현)은 10월 23일 해인사에서 '팔만대장경 천년 세계문화추진 성공기원법회(정대불사)'를 봉행했다.

태고종 종정 혜초 스님, 총무원장 인공 스님을 비롯한 중앙 및 지방 교역직 스님 등 1만 여 사부대중이 운집한 행사는 제1부 영산재 공연과 제2부 법요식, 제3부 영가 시식으로 나누어 진행했다.

태고종 종정 혜초 스님은 "비로자나불 원력이 법계에 두루하사/ 최후의 수승한 몸으로 보리도량에 이루셨네/ 해탈의 깊은 인을 원만하 하사 금강보좌에 오르시네/ 가야산중에서 무상정각을 성취하셨네"라는 법어를 내렸다. 이 법어는 근현대 선지식으로 해인사에 주석했던 설우 스님의 글로 해인사 주련에 새겨져 있다.

혜초 스님은 "스무 살 되던 해 해인사에

서 출가해 60년 만인 올해 세납 산수(傘壽)가 돼 다시 돌아와 법석에 앉게 됐다"며 법문을 통해 직접 >대적광전과 비로자나불 >함해특통 선사의 계승 >조계종 종정 법전 스님이 주석하고 있는 퇴설전의 의미를 소개해 눈길을 끌기도 했다.

해인사 주지 선각 스님은 환영사에서 "사찰과 불교 전통문화를 잘 보존하고 있는 태고종의 저력과 1200년 역사를 가진 해인사의 역사적 전통이 함께 어우러진다면 한국불교는 21세기를 밝히는 찬란한 등불이 될 것이다"라고 말했다.

태고종 경남총무원장 지현 스님은 봉행사를 통해 "이번 정대불사는 태고종 종도로서 역량을 떨치고 지역사회에 봉사과 자비를 베푸는 밑거름이 되리라는 다짐의 장이다"라고 말했다.

태고종 총무원장 인공 스님은 격려사에서 "오늘의 아난법석은 종교적·종단적 차원을 넘어 시대의 화두인 소통과 화합으로 사부대중 모두가 한마음 한뜻으로 어울리는 평화와 상생의 축제마당이다"라고 격려했다.



10월 23일 해인사 정대불사에 참석한 태고종 총무원장 인공 스님, 종정 혜초 스님, 해인사 주지 선각 스님(왼쪽부터)

이날 영산재는 태고종 경남총무원스님들로 구성된 경남도 지정 무명문화재 제22호 불보산영산재가 공연했다.

한편, 해인사는 세계문화유산 팔만대장경의 연구 및 온전한 보전을 목적으로 팔만대장경보존회를 발족해 1인 1경판 인연 맺기 운동을 펼치고 있다. 팔만대장경보존회 1인 1경판 인연 맺기 운동은 5000원의 기부금을 모아 세계문화유산인 팔만대장

경을 연구·유지·보수하는 범국민적 우리문화 지키기 운동이다.

해인사 주지 선각 스님은 "1인 1경판 인연 맺기 국민운동에 모든 불자들이 앞장서 동참해 민족문화를 우리 스스로 지켜내는 주인공이 되자"고 말했다.

팔만대장경 1인 1경판 인연 맺기 국민운동 동참 문의: 해인사 (055)934-3095

조동섭 기자 csetana@gmail.com

대승불교 조계종 수륙대제 및 방생법회

대승불교 조계종(총무원장 한파)은 10월 22일 하동 강변둔지에서 국운상승과 소통과 화합을 위한 수륙대제 및 방생법회를 봉행했다. 이날 행사에는 대승불교 조계종 종정 은파 스님, 중앙종회의장 영각 스님, 경남 서부교구장 경월 스님 등 1000여 사부대중이 참석했다.

총무원장 성환 스님은 "대한민국 건국 이래 재해로 희생된 영령과 수륙공계 일

체영혼 및 사람을 위해 사라져간 모든 동물을 위령하고자 마련한 행사이다. 생명 존중을 일깨우는 방생을 통하여 대한민국 국운상승과 자비와 배려로서 소통과 화합하는 사회를 발원한다"고 말했다.

이날 법회에서는 태풍으로 범당이 붕괴된 광양 불광사와 하동군 황천면민을 위한 불우 이웃돕기 성금이 전달됐다.

청은 경남남부지사장

부산 용호사회복지관 한국전쟁 사진전

부산 용호종합사회복지관(관장 이춘성)은 11월 1-11일 복지관 1층에서 한국전쟁 발발 1주년 후인 1951년 사진전을 개최한다. 전시에는 부산40계단문화관과 부산불교역사연구소 지원으로 1951년 사진 40점이 전시된다.

4일 10시에는 복지관 2층 용호문화센터에서 '사진으로 보는 부산 역사'를 주

제로 부산불교역사연구소 김한근 소장의 특강도 열린다.

용호종합사회복지관 이춘성 관장은 "문화복지사업을 통해서 문화공연을 쉽게 접할 수 없는 저소득 계층뿐 아니라 모든 지역주민들에게 문화 향유의 기회를 제공하여 삶의 질 향상에 도움이 되길 바란다"고 말했다. (051)628-6737 이재진 부산지사장

금정산 무명사, 가을 산사 음악회

금정산 무명사는 10월 22일 '첫 번째 가을 산사 음악회'를 경내에서 봉행했다.

행사에서는 신비의 기도도량 무명사의 오늘이 있기까지 무명 스님의 수행의 원력과 인연의 내력에 대한 법문과 김세연

국회의원, 원정희 금정구정장 등의 축사가 이어졌다.

이어 방송인 이상벽 씨의 사회로 현철, 심진 스님, 강진, 붓다 중창단 등이 다채로운 공연을 선보였다. 이재진 부산지사장

대구 제현사 도동시비동산조성 4주기 법회

대구 제현사(주지 범룡)는 10월 20일 시비동산조성 4주기 기념법회를 봉행했다.

제현사 주지 범룡 스님은 인사말에서

"제현사에 조성된 시비 하나 하나가 시인의 영혼을 담은 그릇과 같다"며 "많은 사람들이 와서 보고 마음에 담아기기를 바란다"고 말했다. 손문철 대구지사장

포교사단 대구경북지역단 분야별연수

포교사단 대구경북지역단은 10월 23일 대구 동화사 통일대불전에서 대구경북지역 포교사단 분야별연수를 실시했다.

포교사단 임희웅 단장은 인사말에서

"이 연수를 통해 수행과 포교의 초석을 굳건히 다지고 나아가 더 높이 도약할 수 있는 계기가 될 수 있도록 전력을 다 하자"고 말했다. 손문철 대구지사장

팔공산 거조암 육법공양나한대제

팔공산 거조암은 10월 22일 제7회 육법공양나한대제를 봉행했다.

은혜사 주지 돈관 스님은 법어에서 "보조국사 지눌 스님이 거조암에서 정혜결사

를 통해 새로운 불교의 장을 열었듯이 이 자리에 모인 사부대중은 하심해 신심을 더욱 굳건히 하자"고 말했다.

손문철 대구지사장

어느 것에도 물들지 않아야

부산 길상사 삼계선원(주지 혜수)이 창건 3주년을 맞아 천일기도 입재와 큰스님 초청법회를 개최했다.

큰스님 초청 법문은 10월 26일 수불 스님(안국선원장)을 시작으로 27일 천일기도 입재에 이은 대성 스님(前 범어사 주지)의 법문, 28일 통도사 주지 원산 스님이 법문했다. 천일기도의 화합일은 2014년 7월 22일이다.

큰스님 초청법회 첫날인 26일 수불 스님은 "종교를 믿으면 이익이 생긴다. 종교 자체를 위해 종교를 믿으면 안된다. 진리를 알기 위해 종교를 믿어야 한다"고 법문했다.



진리에 근접하고, 그럼으로써 종교가 갖는 힘이 생긴다"며 "종교의 가르침은 삶을 외면하지 않고 사회의 변화를 수용하면서 더욱 넓고 큰 것을 볼 수 있어야 종교를 올바르게 믿는 것"이라고 말했다.

수불 스님은 "불교가 추구하는 가치관으로 올바르게 종교를 믿고 삶을 변화시키기를 바란다"고 당부했다.

주지 혜수 스님은 "3년 동안 사부대중이 함께 노력한 결과 누구나 편안하게 기도할 수 있는 부처님 도량으로 자리매김하게 됐다. 모든 공덕을 대중에게 회향하고자 천일기도 입재와 큰스님 초청법회를 봉행하게 됐다"고 말했다. (055)333-8202 이재진 부산지사장



선재동자 풋살대회 대구불교총연합회(회장 성문 스님·동화사 주지)는 10월 23일 대구공업대학 풋살경기장에서 제1회 대구불교총연합회장 선재동자 풋살대회를 개최했다. 이날 행사에는 32개 팀이 초교 1~2학년과 3~4학년으로 나뉘어 오전 8시 30분부터 예선전과 리그전을 열었다. 초등학교1~2학년 부에서는 윤창열 FC가 우승했고 초등학교 3~4학년 부에서는 하태호FC가 우승했다. 손문철 대구지사장

열린 도량에서 이어지는 문화강좌

전법도량 남천사는 10월 26일 신행지도자 양성과정 특강 개강법회를 봉행했다.

행사에는 염불선덕 영인 스님, 해인사 도솔암 주지 태연 스님, 금화사 주지 매물 스님 등 100여 사부대중이 동참했다.

영인 스님은 "전법도량 남천사를 자갈치 상인들이 조석으로 부처님을 찾아 참하기도 하여 삼재판관을 막는 기도 성취도량으로 사부대중이 한마음으로 일궈 나가자"고 법문했다.

전법도량 남천사는 금화사 주지 매물 스님이 생선회·구이 장사로 불살생의 자비종자를 심지 못하는 부산 자갈치 시장 상인 등 불자들의 케회 기도도량으로 창건한 열린 공간이다.

남천사는 이날 개강법회를 시작으로 경전, 불교 호스피스 케어, 염불 집탁, 근본 불교, 사찰음식 등 각 분야에 권위 있는 선지식을 초청해 특강을 이어갈 예정이다. 011-9509-1555 이재진 부산지사장

선어사전

옛 선사들의 깨달음의 향기를 온전히 전해주는 선어 해설!

禪語事典

누구나 쉽게 읽으면서 선의 근본 뜻을 이해하고 선문화가 가지는 교결深遠한 정취를 맛볼 수 있는 선 입문서!

적정寂靜하면서도 활발活潑한 선의 세계로 이끌어주는 선지持者들의 필독서!

선어 940여 개, 등사 및 선어록 80여 개 수록!

해원 편저 | 사륙판 양장 | 512쪽 | 값 23,000원

● 도서출판 운주사 ● 전화 (02) 926-8361 ● 주문 (02) 3672-7181 ● 서울시 성북구 동소문동 4가 270번지 성심빌딩 3층

중생들을 고난으로부터 구제해주는 33분 관세음보살님과의 만남!

우리 곁에 계신 33관세음보살 이야기

33관세음보살은 어떻게 탄생했으며, 어떤 모습으로 중생들에게 나루셨는가? 항상 중생들 곁에 계시면서 중생의 아픔을 보듬어주는 33분 관세음보살님의 유래와 영험담!

전통과 현대적 기법이 조화를 이루어 그려 모신 33관세음보살도! 중생들의 어려움에 따라 각기 다른 모습으로 나타나시어 고난으로부터 구해주는 33분 관세음보살님의 성스럽고 친근한 모습!

방경일 글·남종진 그림 | 국판 변형 | 컬러 | 256쪽 | 값 13,000원

● 다음카페: 도서출판 운주사 www.cafe.daum.net/unjubooks